

KIA, 외국인 투수 2명 모두 교체... 산체스·파노니 영입

산체스, 185cm·75kg 마이너리그서 10시즌·대만서 1시즌 활약
파노니, 지난해 KIA서 14경기 나와 2.72 평균자책점에 3승 4패



KIA 타이거즈가 외국인 투수 전면 교체라는 강수를 두었다. 원점에서 새로 시작하는 KIA의 승부수가 될 지 관심이 쏠린다.

KIA는 6일 새 외국인 선수의 영입 소식을 잇달아 전했다. 먼저 이날 오전 올 시즌 대만리그에서 다승·평균자책점 1위를 기록한 베네수엘라 마라카이보 출신의 우완 마리오 산체스(Mario Sanchez·29)를 아도니스 메디나의 대체 외국인 선수로 발표했다.

이어 오후에는 지난 시즌 KIA에서 활약했던 좌완 토마스 파노니(Thomas Edward Pannone·29)의 재영입 소식을 알렸다. KIA는 이와 함께 KBO에 손 앤더슨의 웨이버공시를 신청했다.

KIA가 연봉 28만 달러에 계약한 산체스는 185cm·75kg의 체격으로 마이너리그에서 10시즌, 대만 프로야구 리그(CPBL)에서 1시즌 활약했다.

올 시즌 통이 라이온스 소속으로 대만리그 10경

기에 등판(선발 등판 9경기)한 산체스는 62.2이닝을 소화하면서 평균자책점 1.44으로 8승 1패를 기록했다.

마이너리그에서는 통산 210경기에 나왔고, 이중 선발로 77경기를 소화하면서 44승 33패 평균자책점 3.94를 기록했다.

산체스는 안정적인 제구력을 바탕으로 경기 운영 능력이 뛰어나고 다양한 구질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산체스는 평균 140km대 중후반의 빠른공과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으로 올해 대만 프로야구 리그 전반기에 다승, 평균자책점 부문에서 1위도 차지했다.

5일 입국한 산체스는 메디컬 테스트를 마치고 6일 KIA와 계약을 했다.

KIA는 파노니와는 연봉 35만 달러에 계약을 마무리했다.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크랜튼 출신인 파노니는 185cm·92kg의 체격을 갖췄으며 메이저리그에서 3시즌, 마이너리그에서 10시즌 활약했다.



산체스(왼쪽)와 파노니

올 시즌에는 밀워키 브루어스에서 1경기에 나와 2.2이닝을 던져 평균자책점 6.75를 기록했다. 마이너리그에서는 밀워키 산하 네슈빌 사운즈(AAA) 소속으로 11경기에 등판해 53.1이닝 동안 3승 1패 평균자책점 2.70을 기록했다.

메이저리그 통산 기록은 50경기 출장(선발 등판 13경기) 7승 7패 평균자책점 5.46, 마이너리그에서는 통산 168경기(선발 등판 133경기)에 출전해 46승 34패 평균자책점 3.99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로니 윌리엄스의 대체 선수로 KIA 유니폼을 입고 KBO리그도 경험했다. 파노니는 지난해 KIA 소속으로 14경기에 나와 82.2이닝 동안 2.72의 평균자책점과 3승 4패를 기록했다.

6일 입국한 파노니는 7일 메디컬테스트를 거쳐 KIA에 재합류한다.

올 시즌 KIA의 새 전력으로 기대를 모았던 앤더슨과 메디나 두 외국인 투수는 결국 6승 13패의 전적을 남기고 KIA와 작별을 하게 됐다.

앤더슨은 14경기에서 79이닝을 소화하면서 3.76의 평균자책점으로 4승 7패를 기록했다. 메디나는 12경기에서 58이닝 밖에 책임지지 못했고, 2승 6패 평균자책점 6.05의 기록을 남겼다.

KIA가 새 판을 짜면서 반전의 발판은 마련했지만 2년 연속 외국인 선수 농사에 실패하면서 시간 낭비를 했다. 여기에 '좌완 풍년'으로 재계약 여부를 놓고 고민했던 파노니를 다시 또 대체 외국인 선수로 영입하는 등 입맛이 개운치 못한 작별과 재계약이다.

어찌 됐든 KIA가 승부수를 던졌다. 반동의 여지는 남아있다.

17-3 대승을 기록한 5일 경기까지 KIA는 10개 구단 중 가장 적은 70경기를 소화했다. 가장 많은 일정이 진행된 키움과는 9경기 차, 9위도 경험했지만 3위 두산까지 승차도 4경기에 불과하다.

김선빈의 복귀도 임박하는 등 나성범과 김도영 두 부상 선수가 돌아왔고, 최원준도 전역해 그라운드를 누리고 있다. 또 긴 조정 시간을 가졌던 정해영도 볼펜에 다시 가세하면서 KIA는 최상의 전력을 갖추고 있다. 마지막 퍼즐이 선발전 정상화다. 산체스와 파노니가 '가을잔치'라는 퍼즐을 위한 마지막 조각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김민재 훈련소 퇴소...뮌헨 이적 '카운트다운'

'철기둥' 김민재(26·사진)의 육군훈련소 퇴소 일을 맞아 '독일 거함' 바이에른 뮌헨으로의 이적이 마침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지난달 15일 기초군사훈련을 위해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했던 김민재는 3주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6일 수료식을 치르고 본격적인 이적 절차를 밟는다.

김민재는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중앙 수비수를 맡아 한국 축구가 우승하는 데 큰 힘을 보태며 병역 혜택을 받았고, 앞으로 34개월 동안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면서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이수하면 병역의 의무를 마친다.

지난해 여름 이탈리아 세리에A 나폴리로 이적한 김민재는 중앙 수비수로 맹활약하면서 팀이 33년 만에 세리에A 정상에 오르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이를 바탕으로 김민재는 2022-2023시즌 세리에A 최우수 수비수로 뽑혔다.

김민재의 활약에 유럽 빅클럽들이 러브콜을 보냈고,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뮌헨이 최종 이적처로 확실시된다.

이제 김민재에게 남은 일은 뮌헨의 메디컬 테스트를 받고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뿐이다.

뮌헨도 오는 15일까지 발동되는 바이아웃(최소 이적료) 조항에 맞춰 나폴리에 돈만 지불하면 이



적 절차가 끝난다.

최소 이적료 조항만 맞추면 되는 터라 구단끼리 별다른 협상 과정도 필요 없다.

김민재의 바이아웃 금액은 5000만 유로(약 709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외신에 따르면 김민재는 뮌헨과 계약 세부 내용도 마무리했다. 2028년 6월까지 5년 계약에 연봉은 1200만 유로(약 170억원) 수준이다.

애초 육군훈련소를 퇴소하면 곧바로 독일로 이동할 뻔했던 김민재는 이달 중순쯤 출국할 예정이다.

3주 군사훈련을 받은 만큼 국내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국내에서 메디컬 테스트까지 마무리하고, 바이아웃 조항 발동 마지막 날인 15일 이후에 독일로 떠날 전망이다.

스카이스포츠 독일판은 이에 대해 "뮌헨의 메디컬 팀 의사가 김민재의 메디컬 테스트를 위해 한국에 도착했다"라며 "뮌헨도 메디컬 테스트가 끝나면 며칠 내로 5천만 유로 수준의 바이아웃 조항을 실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가상 콜롬비아' 아이티와 마지막 평가전

월드컵 출전 여자 축구대표팀
내일 오후 5시 '16강 행' 점검

2023 국제축구연맹(FIFA) 호주·뉴질랜드 월드컵에 출전하는 여자 축구대표팀이 '가상 콜롬비아' 아이티를 상대로 국내에서 마지막 점검에 나선다.

콜린 벨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8일 오후 5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아이티와 평가전을 치른다. 중남미 국가인 아이티는 월드컵 조별리그H조 첫 경기에서 맞붙을 콜롬비아를 염두에 둔 상대다.

2015 캐나다 대회 이후 8년 만에 16강 진출을 노리는 벨호로서는 첫 경기에서 승점 3을 따는 게 '16강행 로드맵'의 핵심일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벨 감독은 아이티전 사흘 전인 지난 5일에 일찌감치 월드컵에 참가하는 23인의 최종 명단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예 멤버만 추려서 아이티와 맞붙겠다는 심산이다.

아이티의 FIFA 랭킹은 53위로 콜롬비아(25위)보다 낮지만, 이번 월드컵 본선행 티켓을 따내는 저력을 보였다.

대륙 간 플레이오프에서 세네갈과 질레를 연이어 꺾고 사상 첫 본선에 진출했다.

한국 대표팀에 아이티전은 지난달 18일부터 파주 국가대표팀 트레이닝센터(NFC)에 소집해 20

일가량 진행된 '고강도 훈련'의 효과를 살펴볼 기회다.

벨 감독은 우리나라 선수들의 체력을 한층 끌어올려야만 세계적 강호들과 맞상대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공개석상에서 여러 차례 내놨다.

1년 전 NFC에서 취재진과 만난 그는 우리나라 여자 실업축구 WK리그와 타국 리그 선수들 사이 활동량 차이는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럼에도 세계 강호들과 경기력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활동량이 아닌 '회복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봤다.

경기 중 잦은 스프린트를 선보이려면 질주 사이에 바닥난 체력을 다시 끌어올리는 회복력이 중요하다는 게 벨 감독의 지론이다.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벨 감독은 월드컵이 일찌감치 NFC로 선수들을 불러 모아 '지옥 훈련'을 진행해왔다.

잉글랜드 무대를 경험한 베테랑 지소연(수원 FC)이나 이금민(브라이턴)조차 "힘들다"고 혀를 내두른 훈련을 소화한 선수들은 체력에 대해서는 확실히 자신감을 찾았다.

장승기(인천 현대제철)는 지난 3일 "고강도 훈련 덕에 체력적으로 많이 좋아졌다. 체력이 좋아지면 다른 요소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말했다.

이 경기를 마치고 10일 '결전의 땅' 호주로 떠나는 대표팀은 11일 하루 쉬고 25일 콜롬비아전까지 매일 훈련을 통해 조직력을 다진다. /연합뉴스



테니스 선수 노바크 조코비치(2위·세르비아)가 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올잉글랜드 클럽에서 열린 Wimbleton 테니스대회 사흘째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조던 톰프슨(70위·호주)을 3-0(6-3 7-6(7-4) 7-5)으로 물리쳤다. /연합뉴스

조코비치, 메이저 대회 통산 350승

윌블던 테니스 3회전 진출

노바크 조코비치(2위·세르비아)가 테니스 메이저 대회 남자 단식 본선에서 통산 350승 고지에 올랐다.

조코비치는 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올잉글랜드 클럽에서 열린 윌블던 테니스대회(총상금 4470만 파운드·약 743억원) 대회 사흘째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조던 톰프슨(70위·호주)을 3-0(6-3 7-6(7-4) 7-5)으로 물리쳤다.

이로써 조코비치는 남녀를 통틀어 통산 세 번째로 메이저 대회 단식 본선에서 350승 고지에 오른 선수가 됐다.

은퇴한 로저 페더러(스위스)가 369승, 세리나 윌리엄스(미국)가 365승을 기록했다.

메이저 대회 하나에 가장 많이 거둘 수 있는 승수가 7승이기 때문에 조코비치는 산술적으로 올해 윌블던에서 남은 4승, US오픈에서 7승을 추가하면 올해 안에 360승까지 돌파할 수 있다.

윌블던 30연승을 이어간 조코비치는 32강인 3회전에서 토마스 마르틴 에체베리(32위·아르헨티나)-스탄 바브링카(88위·스위스) 경기 승자를 상대한다.

조코비치가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면 대회 5연패 외에 메이저 대회 단식 24회 우승, 세계 랭킹 1위 탈환, 윌블던 남자 단식 8회 우승 등의 기록을 세

운다.

메이저 대회 단식 24회 우승은 은퇴한 마거릿 코트(호주)가 1973년 달성한 기록과 동률이 되고, 윌블던 남자 단식 8회 우승은 페더러가 2017년 달성한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다.

여자 단식에서는 세계 랭킹 1위 이가 시비옹테크(폴란드)가 사라 소리베스 토르모(84위·스페인)를 2-0(6-2 6-0)으로 꺾고 3회전에 진출했다.

시비옹테크는 페트라 마르티치(29위·크로아티아)-다옌 페리(96위·프랑스) 경기 승자와 16강 진출을 다룬다. /연합뉴스